

# 국어 음운현상의 의존음운론적 접근

이 동 화\*

## 〈목 차〉

I. 서 론	2.2.3 비음화
II. 본 론	2.2.4 자음중화
2.1 의존음운론 개관	2.2.5 전설고모음화
2.2 국어 의존음운론	2.2.6 음라우트
2.2.1 국어 자음의 의존음운론적 표시	2.2.7 보상적 장음화
2.2.2 국어 모음의 의존음운론적 표시	III. 결 론

## I. 서 론

구미 언어학이론이 국어에 도입되면서 국어학의 발전에 커다란 이바지를 해 온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음운론에 있어서는 1970년대에 도입된 생성음운론이 국어음운론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이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론에만 치우친 나머지 국어 자료에 대한 무리한 적용으로 부자연스런 설명이나 그릇된 해석에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sup>1)</sup>

최근 들어 초분절음소(suprasegmen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선음운론(non-linear phonology)에 의한 접근이 국내에서도 조금씩 시도되고 있다. 자립분절음운론(autosegmental phonology)을 비롯하여 어휘음운론(lexical phonology), 음절음운론(syllabic phonology), 율격음운론(metrical phonology), 운율음운론(prosodic phonology), 자질층위이론(feature geometry), 의존음운론(dependency phonology)등의 이론들이 몇몇 학자들에 의해 국어에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부분적 또는 종합적인

\* 영남대학교 강사

1) 국어음운론 연구에서의 구미 언어학이론의 수용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명옥(1989)에서 검토된 바 있다.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sup>2)</sup>

본고에서는 이들 이론 가운데 의존음운론에 대해 그 이론적 배경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다음,<sup>3)</sup> 국어에서의 적용을 시험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분절음을 이루는 원소(또는 성분)들이 지배와 의존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이 이론에 입각하여 국어의 여러 음운현상들 중에서 논의의 편의상, 여기서는 주로 자음과 관련된 음운현상인 비음화, 자음중화, 그리고 모음과 관련된 음운현상인 전설고모음화, 움라우트, 보상적 장음화 등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의존음운론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모색한 다음, 여러 음운현상들을 의존이론에 의해 표시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통시적 현상과 공시적 현상에 대한 엄밀한 구분은 유보하는 입장을 취하기로 한다.

## II. 본 론

### 2.1 의존음운론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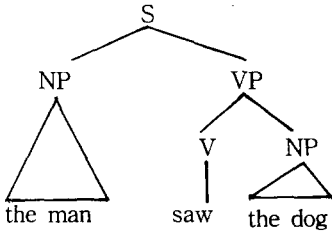
의존음운론은 통사론에서의 구절구조 수형도(*phrase-structure trees*)에 그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서술어가 NP논항에 대해 가지는 관계는 ( ) ㄱ, ㄴ)에서 처럼 서술어인 동사(V)는 그 논항을 지배(*govern*)하고, 각 논항들은 동사에 의존(*dependent*)하는 것이다(Lass, 1984 : 27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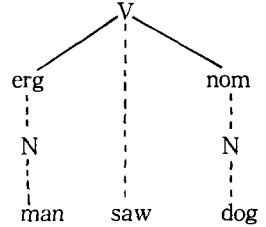
2) 이들 이론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는 오정란(1993)에서 다루어 진 바 있으며, 곽동기(1992), 김기호(1987), 김종훈(1990), 손형숙(1987), 안상철(1985), 이동화(1990, 1992, 1994) 등에서는 국어 자료를 통한 이론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3) 의존음운론에 대해서는 Anderson, J. & Durand, J.(eds)(1987), Enderson, J. & Ewen, J.(1987), Durand, J.(1986), Lass, R.(1984)등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고, 이동화(1994)에서는 이 이론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1) 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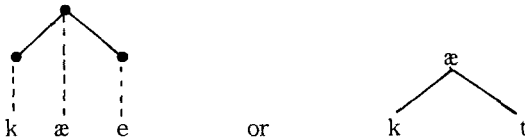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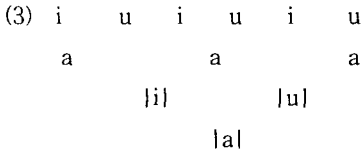
(erg=ergative, nom=nominative)

통사론에서의 이런 관계를 음운론에서의 의존구조(dependency structure)로 바꾼다면, 가령 단음절어인 'cat'에서 주변요소(O, C<sub>0</sub>)는 성절요소에 의존하거나,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2)에서 알게 된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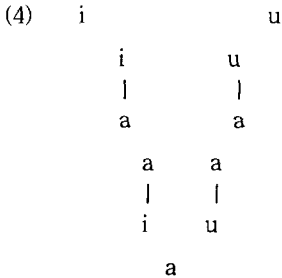


그러면 의존음운론에서의 분절음 내부구조의 의존관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의존이론에 있어서 모음의 구조는 세 개의 원소(elements 또는 primitives), 즉 [i], [u], [a]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들은 각각 구개성(palatility), 원순성(roundness), 개방성(openness)을 의미하는데, 가장 단순한 모음체계는 (3)과 같이 세 개의 원소로만 구성된 것이다.(Lass, 1984 :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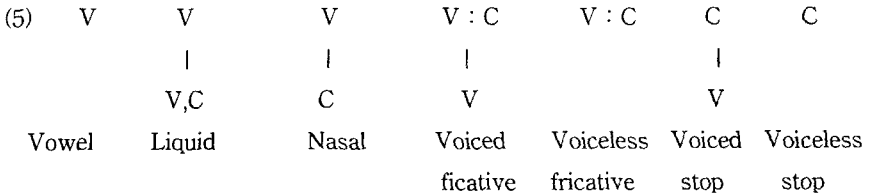


그리고 이들 3모음 이외의 다른 모음들은 원소의 결합에 의해 표시되는데, 가령 [e]는 [i] ⇨ a로 [æ]는 [a] ⇨ i로, [o]는 [u] ⇨ a로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i, e, æ, u, o, ɔ, a/ 7모음 체계로 된 언어의 의존관계는 다음 (4)와 같다.<sup>4)</sup>



이번에는 자음의 구조를 의존관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분절음 구조를 음운적 범주(phonological category) 또는 성분(component)을 나타내는 |V|와 |C|의 결합에 의해 의존구조로 표시하는 방안이 있다.<sup>5)</sup> 이들 성분이 결합하여 표시되는 지배관계는 공명도(sonority)의 층위를 고려하여 (5)와 같이 표시된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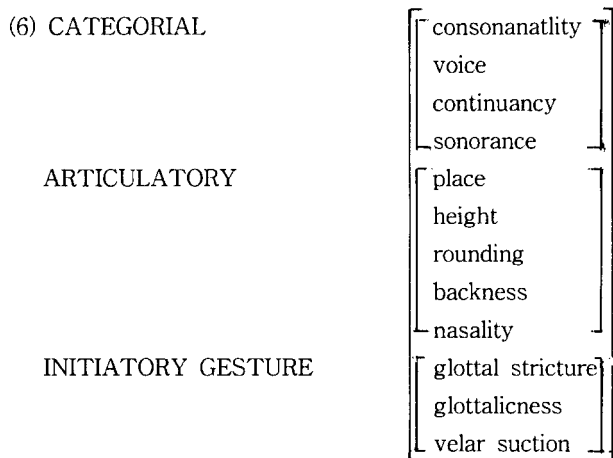
다음으로 특질(gesture)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분절음을 이루는 여러 자질들을 묶어서 특질이란 하위 모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SPE에서 설정된 많은 변별자질들이 무질서한 묶음에 불과한데 비해 DP에서는 음운적, 음

4) 여기에서 원소가 수평으로 결합할 때는 화살표의 왼쪽이 지배자, 오른쪽이 의존자이고, 상하로 결합될 때는 위쪽이 지배자, 아래쪽이 의존자가 된다.

5) 수직선으로 둘러싸인 |V|와 |C|의 두 성분은 전자가 '상대적인 개방성'을 나타내고, 후자는 '개방적 에너지의 약화'로 나타낸다.

6) 편의상 V,C에 대한 수직선(11)표기는 생략하기로 한다(자세한 것은 Durand, J(1986 : 34)참조).

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이들을 자연스런 몇 개의 부류로 나누어 특질이라 부르고 있다.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 그리고 SPE에서의 주요부류자질들을 고려하여 2분법 또는 3분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가령 3분법은 범주적 특질 (categorical gesture), 조음적 특질(articulatory gesture), 발성적 특질(initiatory gesture)등으로 나누어진다.<sup>7)</sup> 3분법의 예는 (6)과 같다(Durand, 1986 : 21).



이렇게 볼 때 의존음운론은 통사론에서의 수지도의 개념을 바탕으로 분절음의 내부구조를 계층적으로 보고, 지배와 의존의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분절음이나 음운현상을 좀더 자연스럽게 설명하려는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 2.2 국어 의존음운론

### 2.2.1 국어 자음의 의존음운론적 표시

현대 국어의 자음에는 /p, p', p<sup>h</sup>, t, t', t<sup>h</sup>, c, c', c<sup>h</sup>, k, k', k<sup>h</sup>, s, s', m, n, ŋ, l/ 이 있다. 자음과 관련된 음운현상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들을 자연부

7) 2분법의 경우는 자질의 수에 있어서는 3분법과 차이가 거의없다.

8) 의존음운론에 대한 더욱 자세한 논의는 이동화(1996)으로 미룬다.

류에 의해 분류하는 방안은 이미 초기 생성음운론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어의 자음은 조음방법과 조음위치에 따라 전통적으로 몇 개의 부류로 나누어졌는데, 전자의 경우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으로, 후자의 경우는 순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등으로 분류되어 왔다.

여기서는 Lass(1984 : 283), Durand(1986 : 34), Anderson and Durand(1987 : 35)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 자음을 의존음운론적으로 표시해 보기로 한다.

먼저 조음방법에 의한 분류를 두 개의 범주 요소(categorical primitives)인 |V| 와 |C|를 사용하여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7)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C	V : C	C	V	V
		V : C	C	V, C

이 때 장애음과 공명음을 자연부류로 각각 묶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Anderson and Durand(1987 : 36)에서의 표기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하면 될 것이다.<sup>9)</sup>

(8) 장애음	공명음
C ;	~ C ;

다음으로 조음위치에 의한 분류를 위해 조음 성분인 |l|, |il|, |ul|를 이용하여 표기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l|은 능동부인 혀의 설정성(linguality)을 나타내고 초기 생성음운론에서의 [+cor]자질과 유사하며, 특징적 요소(colouring elements)인 |il|, |ul|에 의해 자연부류인 연구개음과 순음을 표시하게 된다(Lass, 1984 : 285).

그리하여 국어의 순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은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할

9) 여기에서 ‘ ; ’표기는 의존을 나타내고, ‘~’표기는 부정소(negative operator)를 나타낸다.

수 있다.<sup>10)</sup>

(9) 순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u		, i	, u

한편, 국어의 장애음은 성문개방의 정도에 따라 유기성의 정도가 좌우되는데, 평음, 경음, 격음은 성문 개방(glottal opening)표시인 |O|에 의해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Anderson and Ewen, 1987 : 193).

(10) 평음	경음	격음
{O} : { C }	{ C }	{O}
	{O}	{ C }

이와 같은 표시 방법에 의해 국어의 자음은 자연부류를 중심으로 의존음운론적으로 표시하게 된 셈이다.

### 2.2.2 국어 모음의 의존음운론적 표시

국어의 모음을 의존음운론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입자음운론의 개념을 그 바탕에 두고 있다고 하겠다.<sup>11)</sup>

입자음운론에서는 |a|, |i|, |u| 세 개의 원소입자의 결합에 의해 모든 모음이 표시되는데, 입자 |a|는 개구성이나 개방성을, |i|는 구개성이나 전설성을, |u|는 순음성이나 원순성을 각각 나타낸다. 가령 모음 [e]는 입자음운론에서 ia로, [ɛ]는 ai로, [o]는 ua로, [ɔ]는 au로 각각 표시되는데, 이들을 입자음운론과 의존음운론에 의해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국어에서의 '성문음'표시는 여기에서 제거되었는데, 이에 대한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11) 입자음운론에 관한 더욱 자세한 논의는 이동화(1996)를 참조할 것.

(11) ㄱ. 모음	[e]	[ɛ]	[o]	[ɔ]
ㄴ. 입자음운론적 표시	ia	ai	ua	au
ㄷ. 의존음운론적 표시	i	a	u	a
	a	i	a	u

위의 (11ㄷ)에서 보듯이 두 개의 원소는 수직선에 의해 지배와 의존의 관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현대국어의 모음을 10모음체계로 보고 그 모음체계도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sup>12)</sup>

(12) 현대국어 모음체계

i	y	i	u
e	ϕ	ə	o
ɛ			
	a		

그리고 이 모음체계를 다시 의존음운론적 모음체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sup>13)</sup>

(13) 의존음운론적 모음표시

i	u	—	u
	i		
a	u	a	u
i	a		a
	i		
a			
a		a	
i		a	

12) 현대 국어는 모음체계에 있어 많은 지역차를 보이고 있으나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상 중부방언의 10모음체계를 제시하기로 한다.

13) 여기에서 모음 i에 대해 의존음운론적 표시에서는 표기의 간소화를 위해 미표시(underspecification)되어 있는데, 미표시이론에 대해서는 이동화(1996 : 167)에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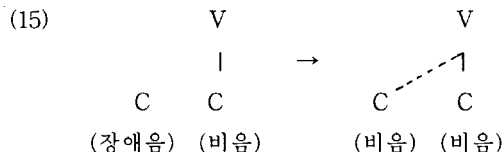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간략한 논의를 통해 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의존음운론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제안된 셈이다.

### 2.2.3 비음화

비음화는 장애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되는 현상이며, 형태소 내부는 물론 형태소 경계에서도 필수적으로 실현되는 규칙이다. 이 현상을 나타내는 예는 (14)에서 확인되며, 이 현상에 대한 의존음운론적 표시는 (15)와 같다.

- (14) ㄱ. cap+ninta(잡는다) → camninda  
       mak+na(먹나?) → mæŋna  
       ㄴ. pat<sup>h</sup>+man(밭만) → pannan  
       cip+man(집만) → cimman



위의 (15)에서 선행하는 장애음의 범주성분 |C|는 후행하는 비음의 범주성분 |V| ; |C|에 의해 |V|성분을 획득함으로써 비음화됨을 보여준다. 즉 하나의 성분인 장애음 |C|가 |V|에 의존하는 관계가 됨으로써 비음으로 실현됨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 2.2.4 자음중화

자음중화는 어간말자음이 미과화되는 현상과 경음화 및 격음화되는 현상을 통틀어 말하는 개념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경음화현상과 격음화현상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경음화는 활용과 곡용에서의 현상이 서로 다른데, 활용의 경우는 어간말

음이 순수자음일 때 후행하는 어미의 파열음이 경음으로 실현되고, 곡용의 경우는 체언말음이 장애음일 때 어미의 파열음이 경음으로 실현된다. 이 현상을 나타내는 예는 (16)과 같으며, 이에 대한 의존음운론적 표시는 (17)과 같다.

- (16) ㄱ. mək+tila(먹더라) → məkt'ira  
           cap+ko(잡고) → capk'o  
       ㄴ. pap+to(밥도) → pap't'o  
           t'ək+put<sup>h</sup>ə → t'ək<sup>h</sup>put<sup>h</sup>ə

- (17) C : O → C  
           |  
           O

위의 (17)에서 장애음과 대등관계에 있던 성문개방(glottal opening)성분인 O가 C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경음화가 실현됨을 보여준다. 국어의 경음은 평음에 비해 기식의 정도가 더 큼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따라서 이 설명은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다음으로 격음화는 어간발음인 h가 어미의 장애음과 결합하여 유기음으로 되는 현상으로서, (18)에 제시된 예에서 이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를 의존음운론적으로 표시하면 (19)와 같다.

- (18) co : h+ko(쫄고) → co : k<sup>h</sup>o  
           noh+tila(놓더라) → not<sup>h</sup>ira  
           nolah+ci(노랑지) → norac<sup>h</sup>i

- (19) C : O → O  
           |  
           C

앞의 경음화에서는 성문개방 성분인 |O|가 |C|에 대해 의존자의 관계가 있었

으나, 뒤의 격음화에서는 IO가 지배자이고 IC가 의존하는 관계이므로 전자보다는 후자가 기식의 정도가 큼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장애음이 평음, 경음, 격음의 상관적 대립을 보이고 있는 국어는 기식의 정도에 의해 구별되는 바, 의존음운론에서는 성문개방 성분인 IO의 의존관계에 의해 이들 세 부류가 각각 달리 표시되는 것이다.

### 2.2.5 전설고모음화

전설고모음화는 형태소 내부 또는 형태소 경계에서 어간말모음 i가 자음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i로 바뀌는 현상인데, 여기서는 잘 알려진 통시적 현상인 전자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다음의 예에서 (20ㄱ)은 국어에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들이며, (20ㄴ)은 특히 동남방언에서 자주 발견되는 예들이다.

- (20) ㄱ. cil- > cil- ‘질-(潤)’  
       c<sup>h</sup>ilk > c<sup>h</sup>ilk ‘침(葛)’
- ㄴ. isil > isil ‘이슬(露)’  
       pjəsil > pəsil ‘벼슬(官)’

치찰음 뒤의 i가 i로 전설화되는 이 현상을 의존음운론적으로 표시하면 (21)과 같다.

- (21) - > i

여기에서 우선 모음 /i/의 자리는 ‘-’로 미표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13)의 입자음운론적 모음체계에서 도시한 바 있다. 그리하여 원소가 없이 비어 있는 자리에 i라는 원소가 삽입됨으로써 i가 지닌 전설성을 획득하게 되고, 이런 설명 방법은 전설고모음화의 과정을 더욱 명쾌하게 보여준다.

### 2.2.6 올라우트

국어에서 매우 생산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음운현상인 올라우트는 후행하는 동

화주 i(또는 j)와 선행하는 피동화음 사이에 비설정적 자음이 개재될 때 피동화음이 동화주에 역행동화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형태소 내부에서의 현상을 보여주는 예를 먼저 간략히 제시하기로 한다.<sup>14)</sup>

(22) ㄱ. [i] > [j]

kilim > kilim '그림(畵)'

ㄴ. [ə] > [e]

əmi > emi '어미(母)'

ㄷ. [a] > [ɛ]

api > ɛpi '아버(父)'

ㄹ. [u] > [y]

mot<sup>h</sup>uŋi > mot<sup>h</sup>yŋi '모퉁이(隅)'

ㅁ. [o] > [∅]

koki > k∅ki '고기(魚)'

이들 예에서 보듯이 '[i]>[j], [ə]>[e], [a]>[ɛ], [u]>[y], [o]>[∅]'로의 모음변화가 있었으며, 따라서 후설모음이 전설화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현상을 의존음운론적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5)</sup>

(23) ㄱ. [i]>[j], [ə]>[e], [a]>[ɛ], [u]>[y], [o]>[∅]

ㄴ. ->i	a>a	a>a	u>u	u>u
	i	a a	i	a a
		i		i

위의 (23ㄴ)에서 확인되듯이 올라우트를 줘기 전의 의존음운론적 모음 표시는

14) 이 현상은 지역차, 세대차가 매우 크지만 설명의 편의상 중부방언의 10모음체계와 관련된 자료를 다루기로 한다.

15) 여기에서의 의존음운론적 모음표시는 앞의 (13)에서 제시된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전설화되는 음운 과정을 밝으면서 각각 의존자 i가 하나씩 삽입되고 있는 것이다. 즉 전설성 원소인 i를 획득하게 됨으로써 후설모음이 전설화되는 과정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2.2.7 보상적 장음화

국어의 보상적 장음화에는 형태소 내부에서 두 음절이 하나의 음절로 축약되면서 장모음화가 실현되는 통시적 현상과 주로 1음절어간에 부사형 어미 a/a가 결합되면서 활음을 형성한 다음 다시 활음이 삭제되는 과정에서 장모음이 발생하는 공시적 현상을 말한다.<sup>16)</sup>

다음 예에서 (24ㄱ)은 전자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24ㄴ)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 (24) ㄱ. sai → sɛ : ‘사이(間)’  
       ai : → ɛ : ‘아이(兒)’  
       ㄴ. po+ato → pwado → pa : do ‘보아도’  
       noh+ato → nwado → na : do ‘놓아도’

위에서 (24ㄱ)은 통시적으로 음절축약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상적 장음이 발생하게 된 예들이고, (24ㄴ)은 공시적으로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활음이 삭제된 때 대한 보상적 장음이 생기게 되는 예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음운과정을 의존음운론적으로 표시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5) ㄱ. [ai] > [ɛ]                      [wa] > [a : ]  
       ㄴ. a i > a                              ūa > a  
           |                                    |  
           a                                    a  
   |  
   i                                    a  
   |                                    /  
   a                                    a

16) 동남방언에서는 2음절 어간의 경우에도 보상적 장음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동화(1996 : 209)에서 간략히 논의된 바 있다.

위의 (25L)에서 보듯이 보상적 장음화가 실현되면서 동일한 원소인 의존자 i 와 a가 각각 첨가됨으로써 음성적으로는 장모음이 실현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의존이론에 의해 두 음절이 하나로 축약되거나 어느 음소가 삭제되면서 발생하는 보상적 장모음화의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의존음운론에 입각하여 국어의 몇몇 음운현상들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의존이론의 개념 자체가 통사론에서의 수형도처럼 지배와 의존의 관계를 바탕으로 자음이나 모음의 내부구조를 파악하여 음운현상을 설명하려는 것으로서 나름대로는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 음운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이 국어의 전반적인 음운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초기 생성 음운론을 비롯한 최근의 여러 이론들보다 더욱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종전 이론에서 명쾌히 밝히지 못했던 어떤 음운현상에 대해 의존이론에 의한 설명 방안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 국어음운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 Ⅲ. 결 론

초기 생성음운론이 등장한 이후 최근까지 여러 음운이론들이 개발되어 국어학에 도입되고 있다. 이런 이론들 가운데는 국어의 음운현상을 설명하는 데 매우 적절한 것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물론 있기 마련이다. 면밀한 검증 절차를 거쳐 과연 어느 이론이 국어의 자료를 설명함에 있어서 더 타당한지를 먼저 밝혀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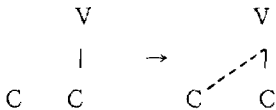
이런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우선 의존음운론에 대해 국어의 몇몇 음운현상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을 개괄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다루어진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먼저 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의존음운론적으로 표시해 보았다. 자음은 여러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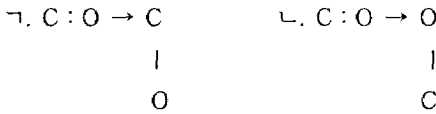
소들을 몇몇 자연부류로 나누어 주로 범주성분인 |C|와 |V|를 사용하여 표시하고자 하였고, 모음은 중부방언의 10모음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여러 모음에 대해 세 개의 원소 a, i, u의 결합에 의해 지배와 의존의 관계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어의 여러 음운현상 가운데 본고에서는 비음화, 자음동화, 전설고모음화, 음라우트, 보상적 장음화 등을 다루었는데, 이 중 비음화와 자음동화는 자음 음운현상들이고 나머지는 모음 음운현상들이다. 이들 음운현상에 대한 의존음운론적 표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비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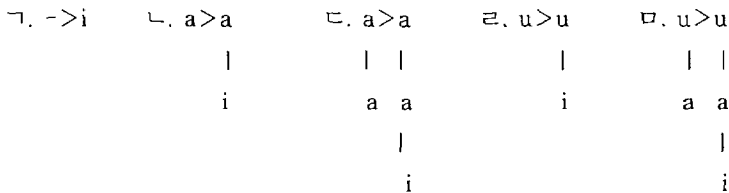
(2) 자음중화



(3) 전설고모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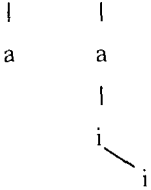
- > i

(4) 음라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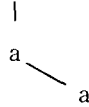


(5) 보상적 장음화

ㄱ. a i > a



ㄴ. ū a > a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여러 음운현상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더 면밀한 고찰을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곽동기(1992), “운율단위에 의한 국어음운현상의 분석”, 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 김경란(1990), “최근 음운이론의 한국어 적용”, 『언어연구』 (대구언어학회) 7.
- 김기호(1987), *The Phonological Representation of Distinctive Feature :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Ph. D. dissertation, Univ. of Iowa at Iowa.
- 김중훈(1990), 『음절음운론』, 한신문화사
- 손형숙(1987), *Underspecification in Korean Phonology*, Ph. D. dissertation, Univ. of Illinois, Urbana.
- 안상철(1985), *The Interplay of Phonology and Morphology*, Ph. D. dissertation, Univ. of Illinois, Urbana.
- 오정란(1993), 『현대 국어음운론』, 형설출판사.
- 이동화(1990), “경북방언성조의 자립분절음운론적 연구”, 영남대 대학원 박사논문.
- \_\_\_\_\_(1992), “율격음운론과 국어”, 『회갑기념논총』(청하 김형수 박사), 형설출판사.
- \_\_\_\_\_(1994), “의존음운론 서설”, 『우리말의 연구』, 우골담.
- \_\_\_\_\_(1996), 『최근 이론 중심의 국어음운론』, 문창사.
- 이시진(1997), “ ‘이’모음 확산에 의한 전설고모음화”, 『영남어문학』 (영남어문학회) 32집.
- 최명옥(1989), “구미언어학 이론의 수용과 국어음운론 연구”, 『국어 국문학과 구미이론』, 지식산업사.
- \_\_\_\_\_(1998), 『국어음운론과 자료』, 태학사.
- Anderson, J. & Durand, J.(eds)(1987), *Exploration in Dependency Phonology*, Foris Publications.
- \_\_\_\_\_ & Ewen, J.(1987), *Principles of Dependency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rand, J.(1986), *Dependency and Non-linear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1990), *Generative and Non-linear Phonology*, Longman Inc, New York.

Lass, R.(1984), *Phonology*,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ane, S. A.(1984), “The Fundamentals of Particle Phonology”, *Phonology Yearbook* 1.